

자살의 총체적인 분석 실어

권태현의 「자살, 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이 전염병처럼 유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도 신문에서 수해로 가족과 집을 잃어 비판 자살한 사람의 얘기를 읽었다.

자살이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위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입시문제, 주택난, 극심한 빈부의 차이, 소홀했던 탓으로 입은 커다란 자연재해 등 어려운 사회상황이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특별히 생소한 것들도 아닌데 자살이 더욱 늘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문제제기를 하고 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방송이나 신문도 방치책을 찾지 않고 보도에 그칠 뿐이다. 그러한 무책임한 보도는 오히려 새로운 자살사건을 유발하는 계기를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떠나서 내가 자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종종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닥치거나 모든 일에 의욕을 잃을 때면 자살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한 유혹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크게든 작게든 자살을 시도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누구나 한번쯤은 느끼는 자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고민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 이 책 저 책을 뒤지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중 내가 만난 「자살, 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은 자살경험이 있는 사람이 엮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 볼만 했다. 위은이는 직접적인 자살경험을 통해 자살이 얼마나 어리

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그후 읽은 자살에 관한 많은 책들의 내용을 추려 뽑아, 자살을 조금이라도 막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살이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 엮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비로소 자살에 관한 많은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까뮈, 니체, 헤세, 생텍쥐페리, 미우라 아야코, 쇼펜하우어, 칼A. 메닝거 등 세계 지성들의 자살에 관한 분석과 주장을 싣고 있는 이 책은 제목에선 낭만적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혹, 자살을 미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용은 자살의 원인, 동기, 자살의 실제 분석,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 등을 참신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제3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이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좀더 알고 행동할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된다.

어떠한 상황이 있는 생명이 진정 신성한 것이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직도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는 내 소중한 삶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지희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사 2동 101-99호 3/2

‘돈’으로 빛어지는 어두운 세태고발

정종명 장편소설 「아들나라」

몇년 전인가, 그렇지 않아도 신문의 특종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아주 시끌벅적한 일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조세형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이 한 사람에 대해 말거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던 것 같고, 경찰이 그때 곤혹을 치른 것도 같고, 또 한동안 ‘물방울다이아’란 말을 유행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조세형이란 사람, 쉽게 말하면 도둑이고, 좀 복잡하게 말하면 냄새나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 골라다가 털어서는 훔친 것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해서 의적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던 사람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조세형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법석을 떨던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향락적이고 소비적으로 -이제는 과소비란 말이 시중의 유행어가 되었듯이-, 또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현격한 차이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임격정류의 동화처럼 된지도 오래다.

정종명의 두번째 장편소설인 「아들나라」는 비교적 간단한 줄거리로 구성돼 있다. 서정일이라는 주인공이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감한 이후 이전의 동업자이자 장물아비였던 오명실을 다시 만나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헤어 나지 못하고 마침내는 경찰에 쫓기다가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곳곳에 서정일의 입을 빌린 작가의 사회고발이 눈에 띈다.

“돈은 필요한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가져야만 보다 가치가 빛나는 법인데, 세상에는 필요 이상 너무 많은 돈을 독점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시들어 버리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자들이 용서할 수 없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 많은 돈을 가졌다면 그건 어쨌든 비정상적이지. 우리 사회에 뭔가 허점과 구멍이 수없이 뚫렸기 때문에 그런 난장판이 가능한 거야... 땀을 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가 지불되고, 그래서 하루 하루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그게 정상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이 어디 그러냐 말아야.”

여기에서 서정일은 속칭 밑바닥인생으로 성장한 프로급 도둑이지만 그의 일면은 조세형이란 사람을 연상시킨다. 남의 것을 허락없이 자기 것으로 하면서 지키는 몇가지 원칙들 때문이다.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는다는가, 냄새나는 것만 훔쳐서 일부는 나누어 쓴다는가 등등의 행동수칙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일이란 인물에게서 이 이상의 어떤 특색이나 의지를 발견할 수는 없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듯이 아마도 작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 거의 절대적인 - 돈의 위력과 이로 인해 빛어지는 인간성의 상실을 고발하고 싶었던 듯 싶다. 사실 소설의 형식으로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게 이 땅의 현실이다. 그래서인가? 너무나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묘사는 생각할 여지를 찾아간다더니, 별다른 여운이 남지 않는 게 이 책이 지닌 한계인 것 같아 아쉽다.

김미영

서울 종로구 낙원동 121-1 성보빌딩. 303호 · 회사원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추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기간 : 11월 24일
무료공개특강 : 11월 24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베어야 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청백리의 고집스런 삶과 철학

짬렁 씨므영의 「짬렁, 내 삶의 이야기」

선거철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선거 후에는 으레히 돌아다니는 돈을 걷어들여느라 한바탕씩 난리를 겪는게, 이제는 일상의 현상으로까지 대접받는 이 땅의 현실에서 금력의 도움없이도 진실만으로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옳지않음이 너무나 극성을 부린 나머지 옳음과 옳지않음의 구분까지 모호해져버려서, 무슨 일이건간에 - 정치와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다 - '금력의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시피 된 요즘에 한권의 책이 눈에 띈다.

「짬렁, 내 삶의 이야기」는 방콕시민들에게 의해 두번씩이나 선택된 방콕시장 짬렁의 삶과 철학을 잔잔하게 담고 있는 짬렁의 소개서와도 같은 책이다.

이 땅의 어지러운 현실때문인지는 몰라도 근래에 들어 TV나 잡지류 등에 커다랗게 소개된대로 짬렁은 특이한 시장님이다. 적어도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 성장했고, 가난때문에 군인이 되었으며, 엘리트장교의 일원이 되어 앞날이 보장된 상황에서 갑자기 군복을 벗어던지고 방콕시장선거에 뛰어들어 압도적인 표로 당선을 한다. 이때 그가 들인 선거비용은 입후보비와 약간의 선전용 포스터제작비가 전부다. 시장이 된 후에는 월급 모두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은 연금만으로 허름한 생활을 한다. 물론 집도 없다. 그리고 시의 예산을 성공적으로 절약해서 그 돈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 다시 쓴다. 한편 개인적인 자선사업도 멈추지 않는다.

짬렁시장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정치가가이보다더는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듯 싶다.

“이 세상에서 진실로 자기의 소유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애지중지 닦고 다듬는 우리의 몸도 빌려온 것이므로 때가 되면 반납해야 한다. 이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헤어지지 않는 것 또한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시간이 좀 늦고 빠를 수 있다는 것일뿐...”

이와같은 철학이 삶을 지배하기에 짬렁시장의 모든 행동들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매사에 너무나도 긍정적인 시각이 거슬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걸려나온 것이기에 책의 앞부분은 동화책을 읽는 듯한 착각도 안겨준다. 정치가가이기에 그의 행동을 놓고 말들도 많지만 그의 삶과 철학은 하나의 가능성을 안겨주기에 우선 기쁘다.

아울러 생소하기만한 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이 한권의 책이 제공하는 작은 선물이다.

권미정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304-39 주부

하버드 의대생들의 인생 역정기

에릭 시겔의 「닥터스」

갖가지 질병이 인간의 주위를 떠난 적이 없듯이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 물론 지구의 다른 반쪽인 동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이지만 - 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인간들, 즉 의사들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따금씩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몇몇 의사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 이들이지만 그래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사란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사람이면서도 때로는 보통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위안을 주어야만 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과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

에릭 시겔의 최신작인 「닥터스」는 제목 그대로 의사들의 삶과 사랑을 그린 재미있고도 치밀한 구성의 소설이다.

작가는 하버드 의대 1962년 졸업생들이 의대에 들어가기까지의 성장배경에서부터 그들이 탈락되지 않고 - "...미국은 매년 약물과 알콜 중독, 그리고 자살로 7학급의 의대졸업생들을 잃고 있다" - 무사히 병아리의사의 딱지를 얻기까지, 그리고 강요되는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견뎌내고 한 사람의 의사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철저한 현장답사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은 그 분량이 적지않은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결과 제공되는 문제거리도 다양하다. 백인과 흑인, 흑인과 유대인, 나아가서는 흑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까지도 유발시키는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은폐와 조작, 그리고 숨겨지는 진실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안락사의 합법적 안정에 대한 문제, 개인의 양심과

윤리를 뒤흔드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습들 등에 관한 고발과 정리가 시겔의 눈을 통해 조명되고 있다.

한권의 책이 실제로 접하지 못한 사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 이 책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4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사회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모르거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 무지한 것도 아닌데, 이 책을 통한 문화적 충격은 적지 않다. 특히 성(性)과 약(마약)에 대한 태도는 거의 이해불가능의 지경으로까지 몰고간다. 반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나 일을 위해서 무섭게 매진하는 투지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삶에 대해,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일에 대해 엄격하게 성실하다고나 할까.

아무튼 이 책을 접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음의 두가지 소득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까지 의사를 신처럼 숭배하지만 의사들의 자살률은 보통사람들보다 8배, 약물중독률은 100배나 더 높을 정도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즉 '상처입은 치유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냄으로써 보다 근접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김용모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경기대학교 물리학과·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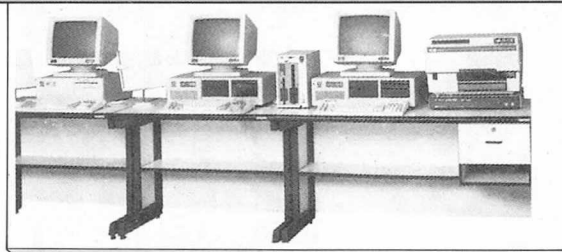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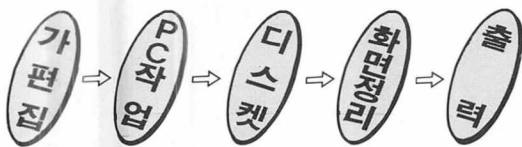
출판회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쇄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픽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등과 서체, 글수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쇄지로 출력가능
- 인쇄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